

“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구역 해제해 달라”

전남도·신안군·흑산공항대책위 국립공원연 등에 용역보고서 전달

신안군이 흑산공항 예정부지에 대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립공원연구원 등에 전달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장관을 만나 이를 다시 한번 건의할 계획이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신안군, 흑산공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국립공원연구원과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실무추진기획단을 만나 흑산공항 예정지 공원구역 해제 용역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공항 예정지의 구역해제를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흑산공항 예정지를 비롯한 지역주민 생활민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흑산공항 예정지는 지난 2010년 제2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당시 공원구역 해제가 강력히 건의됐

지만,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 반영과 공원계획 변경 시에 검토하기로 하고 공원구역 해제는 보류됐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공원구역 해제와 함께 공원총량제 유지·대체 부지 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나 단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해결방안을 보완 중이다.

정일운 흑산공항대책위원장은 “10년 전 해제되지 못해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받고 공항 건설사업은 수년간 착공도 못 한 채 지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공원구역에서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공항은 2009년부터 준비한 숙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교통기반권 확보



전남도와 신안군, 흑산공항대책위 관계자들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추진기획단을 만난, 흑산공항 예정지의 공원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신안군 제공)

와 서해안의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대책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

부장관 면담을 신청해 흑산공항 예정지 일원의 공원구역 해제를 다시 한 번 건의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가거도 뱃길 정상화 하루 2차례 왕복 운항 재개

갑축 운항했던 목포~가거도 뱃길이 지난 1일부터 하루 2차례 왕복 운항으로 정상화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관계 선사와 협의를 거쳐 섬주민과 관광객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흑산과 가거도를 연결하는 기존 운항 노선을 재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노선은 코로나19의 섬지역 전파 우려와 여객 급감으로 지난 3월11일부터 흑산도를 경유하지 않고 1척만 다녔다.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 변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1일 2왕복 운항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다.

목포~가거도 노선은 1일 2왕복 운항을 통해 가거도권 일일생활권 구축을 위해 해수부의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항로’에 선정됐다.

운항시간은 가거도에서 오전 8시 출항(목포 도착 오전 11시10분)하며 목포에서 오전 8시10분 출항(가거 도착 낮 12시10분)한다.

장규표 목포해수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운항편이 축소돼 불편을 겪고 있는 가거도 등 낙도지역 해상교통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지난 31일 영암군청에서 열린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에서 전남 서남권 9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목포대의 설립을 촉구했다. (영암군 제공)

서남권 9개 자치단체장, 목포대의대 설립 촉구

성명 발표...정부 건의문 채택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31일 한자리에 모여 목포대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목포시·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 시장·군수들은 이날 영암군청에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를 열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에 요청할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지역으로 65세 고령인구, 암환자·만성질환자, 응급환자 비율이 높아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대에 의과대가 유치돼야 정부의 의료 불균형 해소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그 당위성, 경제성이

입증됐다”면서 “서남권의 거점인 목포에 의과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2만여평의 넓은 부지가 이미 지난 2002년에 마련되는 등 준비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목포대의과대 설립은 지난 30년간 지역민의 숙원”이라며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국가의 고유한 책무로 의료 낙후 지역인 전남 서남권의 목포대에 의과대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를 신설한다고 결정했다. 전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가 없어 전남지역 의과대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목포 등 전남 서남권에서는 그동안 대정부 건의,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100만 서명운동, 토론회·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꾸준히 목포대의과대 설립을 요청해왔다.

/영암=전병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 ‘작은영화관’ 내년 상반기 개관

청소년문화센터 내 마련 시너지 기대

해남에 100석과 50석 규모의 2개 상영관을 갖춘 작은 영화관이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해남군은 작은 영화관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동시에 추진해 1층에는 작은영화관이, 2·3층에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고 2일 밝혔다.

작은 영화관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사업이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에는 창작공작실, 동아리활동실, 악기연습실, 음원미디어제작실, 댄스연습실, 북카페, 다목적강당, 노래연습실 등이 배치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 가족단위 문화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적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선7기 해남군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청소년 및 가족단위 문화공간을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유동인구를 끌어들이어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총 74억여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25%이다.

해남군은 오는 11·12일 해남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영화관 객석 의사 선정을 위한 군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영화관 운영에 군민들의 의견을 적



해남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극 수렴할 계획이다. 영화관이 개관하면 영화관람을 위해 목포, 광주 등을 방문해야 했던 군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카메라 고발]

영산강하구둑 홍물 벽화 방치...목포 이미지 먹칠



목포 관문인 영산강하구둑의 벽화가 홍물스럽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과 함께 ‘문화도시 목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에 ‘관문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영산강하구둑은 1982년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나불리 사이의 영산강하구를 가로질러 연결했다.

목포시는 지난 2001년 11월 이 하구둑에 벽화를 그렸다. 이후 2016년 전남도가 노후화된 벽화와 콘크리트 일부를 걷어내고 교목류, 화목류, 초화류 등으로 경관 숲을 조성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록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 하구둑 벽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벽화가 퇴색되고 잡풀만 무성하다.

매일 하구둑을 산책한다는 한 목포시민은 “하루 수만 대의 자동차가 오가며 홍물스런 벽화를 마주하게 된다. 목포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관리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벽화를 지우는 것이 낫겠다”고 지적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